■ 여의도 칼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렸다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의 러닝 메이트로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가 예기치 않았던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있다. 닉슨이 유권자들로부터 1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3백만원 정도를 거두어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했다는 것이었다. 워싱턴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가라 앉을 줄 몰랐다. 선거 기간에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 문제였고 그 돈이 정치 활동에만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100%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닉슨을 보호해줄 것처럼 보였던 아이젠하워 마저 시간이 흐르면서 닉슨의 정치 자금 스캔들을 버거워하기 시작했다. 닉슨에게 자진해서 후보를 사퇴해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해 오기도 했다. 닉슨은 마지막 승부수로 TV 연설에 나섰다. 이 기금중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액수는 한 푼도 없음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을 들어 설명한 뒤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솔직하게 공직에 있으면서 유권자에게 사사롭게 받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의 귀염둥이, 점박이가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저를 비난해도 저는 이 점박이를 돌려 주지 않겠습니다."이 연설은 전국 시청자들의 가슴을 움직였고 닉슨은 자칫 정치적으로 사망할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이 일화는 미국 정치사에 "점박이 연설"이라는 이름의 전설로 남아있다.

우리는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고향을 찾아가던 정주영 회장을 기억한다. 얼마나 큰 감동으로 온 계레가, 온 세계인이 이 광경을 지켜봤던가? 그러나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못사는 북한 고향에 약 20억을 주었다'가 그 요지다. 이성적 메시지는 이 한 줄이다. 그러나 이 이성적 메시지를 이렇게 감성적으로 바꾸어 놓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 판 돈을 훔쳐 고향을 떠났던 한 소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어 보은의 소 떼를 몰고 분단 50년사에 처음으로 판문점을 넘는다.' 감동은 바로 뒤의 한 줄에서 비롯된 것이다.